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구성안 ③

광고고등학교 서덕희 선생님

한밤중 편의점에는 누가 찾아올까?

박영란 장편소설 『편의점 가는 기분』



책 소개

18세 ‘나’는 고1 때 학교를 자퇴하고 외할아버지의 편의점에서 일한다. 추운 겨울, 야간에 편의점에 찾아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나’의 눈에 비친 여러 인물들의 사연 하나하나에 우리 사회가 지닌 모순이 담겨 있다. 신도시와 구도시, 하우스 푸어, 청년 주거 문제, 프랜차이즈 사업의 명암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소설이기에 사회 수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탐구 과제로 이어 갈 수 있다.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전 활동

1. 읽기 계획

독서력이 높은 독자라면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음미할 수 있는 소설이다. 하지만 독서력이 낮거나 집중해서 2시간 정도 책읽기가 힘든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교과서처럼 동시에 들고 함께 읽는 것도 좋겠다. 4차시 정도 확보된다면 1차시만 함께 낭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에게 읽어 오도록 해도 된다. 왜냐하면 프롤로그 ‘절름발이 수지’와 ‘나’의 데이트만 읽어도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4쪽당 예상 낭독 시간은 5분이다. 대화 부분에서는 여성이나 아이 목소리는 톤을 높게 하여 연기하듯 낭독한다. 대개 소설 수업할 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할 학생을 먼저 뽑아 직접 대사 부분을 연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나머지 부분을 돌아가며 낭독한다. 훌륭한 연기자의 목소리는 집중력을 높여 준다.

	분량	꼭지	낭독 예상 시간	목독 예상 시간	읽기 방법
프롤로그	7~17(10쪽)	1개	7분	2시간	각자 목독, 일부 낭독
1부	21~104(72쪽)	11개	90분		
2부	107~190(84쪽)	11개	100분		
3부	193~232(40쪽)	6개	50분		

2. 편의점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개와 편의점에서 가장 자주 먹는 것 이야기하면서 책 나눠 주기

3. 표지를 보면서 짐작하는 소설의 배경은? (밤, 편의점, 겨울)

●● 읽기 중 활동

- 읽기 후 활동을 위해 인상적인 문장,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 등을 메모하면서 읽기를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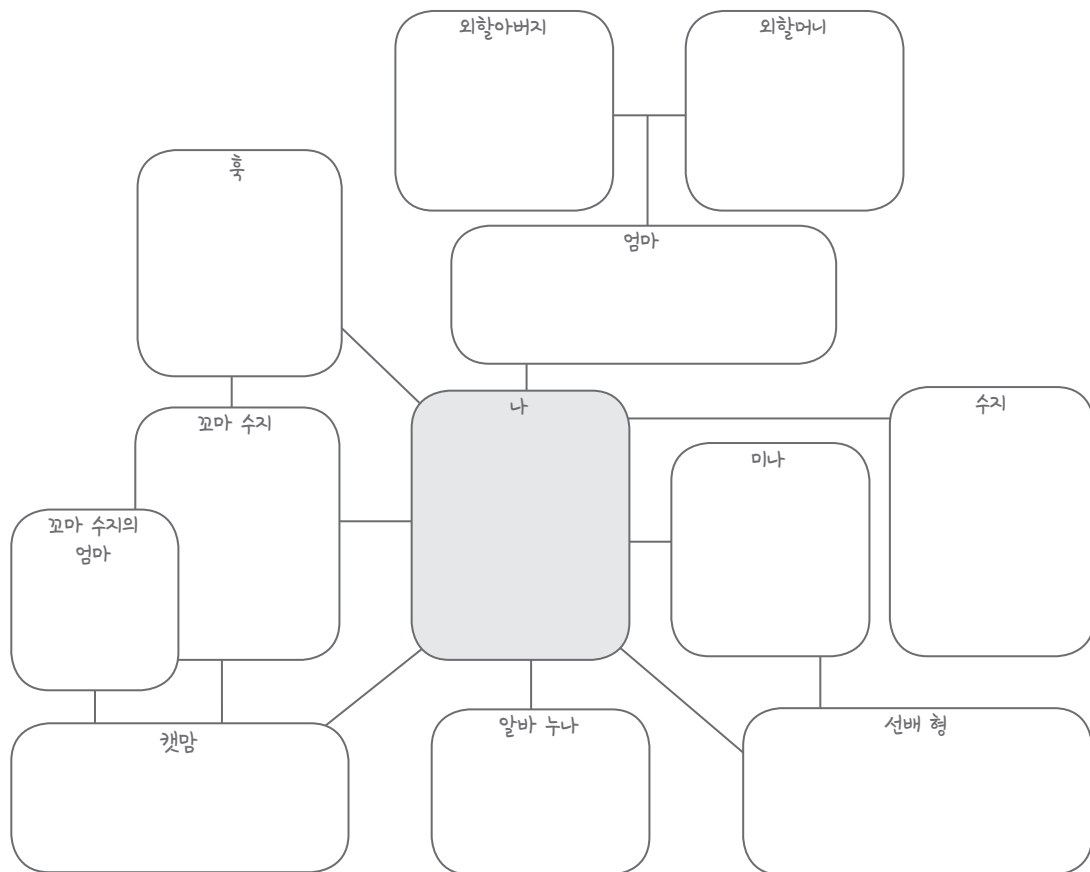
●● 읽기 후 활동

- 이해 활동 1차시, 토의 및 탐구 활동 1차시
- 이해 활동 1, 2번은 학습지를 제공하면 좋다. 탐구 활동은 사회 수업과 연계할 수 있다.

[이해 활동 1] 등장인물에 대해 파악하면서 질문 만들기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므로 모둠별로 1~2명의 주요 인물을 배당하여 정보를 탐색하도록 한다. 인물의 나이나 상황, 편의점에서 먹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찾아 보면 허구적 인물이 구체화되어 실제 주변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 활동을 위해 인물 관계도나 표 채워 넣기 등의 학습지를 준비해 주면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고, 모든 인물의 정보를 한꺼번에 모으기 쉽다. 모둠마다 인물에게 던지는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가. 인물 관계도 예시



나. 인물 탐구 표 예시

등장 인물	연관 부분	나이	상황	취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성격 등	인물에게 질문하기
나	2부 10장	18세	고1 자퇴, 편의점에서 일함	따뜻한 마음씨, 일찍 철이 들	- 학교를 왜 자퇴했나요? - 왜 수지를 찾아가지 않는 건가요?
할아버지	2부 8장		구지구에 집 소유	따뜻한 마음씨, 사람과의 관계	- 왜 재건축 대신 마트를 열려는 건가요?
할머니				가족의 식사 챙기기	
엄마	2부 1장	16+18-1 =33세	미혼모		- “인간답게 사는 게 뭔데?” 이후 왜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나요?
수지	프롤로그	18세	철거될 연립 지하 거주, 중3 중퇴	독서, 음악 듣기	- 마지막 날 왜 깔창을 끼우고 나왔나요? - 왜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갔나요?
훅	3부 4장	22세	대학생, 자취 스쿠터 도둑맞음	컵라면에 삼각김밥	- 스쿠터에 새긴 문구는? - 학교를 자퇴하기로 한 이유는?
꼬마 수지		11세	아빠를 기다리며 엄마를 돌봄	돈가스 도시락	- 왜 옥상에서 불을 피웠나요?
꼬마 수지 엄마			추운 원룸에서 딸과 버티는 중		- 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못하나요?
미나		18세, 고2	원룸에 혼자 거주	반숙 계란에 햇반	- 미성년자인데 남몰래 왜 같이 사나요?
선배 형		19세, 고3	가족과 떨어져 원룸에 거주	에너지 음료	
알바 누나	1부 8장		편의점 아르바이트		- 시차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졌나요?
캣맘			밤마다 고양이를 챙기러 돌아다님	따뜻한 캔커피, 따뜻한 마음	- 왜 고양이를 돌보나요? - 왜 꼬마 수지네를 도와주나요?

교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인물 정보

나	18세, 고1 때 자퇴, 미혼모의 아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음. 밤 12시에 수지를 스쿠터에 태우고 드라이브하며 대화함. 수지가 말없이 사라진 후 텅빈 삼호연립 지하 102호를 가끔 찾아가 감. 떠나 버린 수지와 이름이 같은 꼬마 수지네에게 야간 편의점에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함.
수지	철거를 앞둔 삼호연립 지하 102호에 살. '나'가 졸업한 중학교를 3학년 때 중퇴.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부업을 함, '나'가 자정에 만나 스쿠터를 태워 줌. 봄에 말도 없이 사라짐. 할머니 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나'는 8개월이 지나도록 수지를 찾아가지 않음.
미나	고2, 원룸에 혼자 살. 편의점에서 반숙 계란에 핫반을 사 감.
선배 형	고3, 공부 때문에 원룸에 혼자 살. 에너지 음료를 사 감.
훅	도둑맞은 스쿠터를 찾으러 다님. 22세. 대학생. "세상은 나를 열받게 한다."
캣맘	따뜻한 캔커피, 수지에게 고양이 돌봄을 맡김. 수지 엄마에게 식당 일을 소개해 줌.
알바 누나	"화내는 건 쉬워. 책임지는 게 어렵지." 알바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려 함.
꼬마 수지	11살, 돈가스 도시락을 좋아함. 중국에 계시다는 아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음.
꼬마 수지 엄마	남편 사업이 망하고 노점상을 하다가 강패들에게 행패를 당한 후 말을 못하게 됨.
외할아버지	구지구에 마트를 낀 납작한 집 소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함.
외할머니	빠지지 않고 식구들의 밥상을 차림.
엄마	16세에 미혼모가 됨. 아들이 중2 때 되받아 던진 질문 "인간답게 사는 게 뭔데?" 이후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

[이해 활동 2] 배경과 그 상징성에 대해 이해하기(2부 8장 참고)

구지구	신지구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음산함. 마트: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함.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음. 남아 있는 사람들: 재개발이 되면 '뭐라도 뜯어먹을 게 있는' 사람들.	깨끗하고 번듯한 아파트와 원룸 편의점: 본사와의 노예 계약만 남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음. 사람들의 속사정: 빛을 내서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음. 뺨속까지 가난한 사람들. 하우스 푸어.
마계 건물 물질을 향한 욕망의 결과	

[토의 활동] 인물에 대해 토의해 보자.

가. '혹'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3부 4장)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 '변수 X'의 삶 상상하기

나. '꼬마 수지 엄마'의 깨달음과 '캣맘'의 위로 부분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보자.(3부 2장 끝부분)

다. 나에게 수지는 어떤 존재였는가?(3부 6장)

다-1. 내가 수지를 찾으러 할머니집 근처로 가지 않는 이유는?

다-2. 나는 수지를 다시 만나 편의점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라.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인물을 한 명 꼽는다면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되는 문장이나 행동은 무엇인가?

예시) 캣맘: 왜냐하면 꼬마 수지네나 고양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예시) 알바 누나: 80쪽 알바 누나의 대사 "자각하면 의견을 갖게 되고, 의견이 생기면 화가 나겠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면 바꾸려 들겠지.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을 보면 작가는 불평등한 사회의 모순을 자각하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탐구 활동] 사회 문제에 대해 탐구해 보자.(사회과 수업과 연계)

가. '알바 누나'가 말한 '시차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1부 8장)

"갈아진 시간을 통해 절대 같지 않은 불평등의 시차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

나.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에 대해 탐구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자.(3부 2장 참고)

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소비할 것인가? 소비자 윤리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자.



읽어 읽기 소개 및 마무리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드러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을 읽어 읽기 책으로 추천한다. 『편의점 가는 기분』은 18세 소년이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담담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감성으로 사람을 지켜 주며 성장하는 이야기라 쉽게 읽힌다. 하지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더 많은 상징을 품고 있으며, 복잡하게 서술자가 바뀌는 옴니버스식 구성이기에 독자들이 역사와 사회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공장 굴뚝 꼭대기에 올라 죽음을 맞았던 ‘난장이’에게 겨울밤 찾아갈 ‘편의점’이 있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 아이들은 쑥 하고 성장할 것이다. 단순히 소설 한 권 읽고 독서록을 써 내는 학습자의 수준을 뛰어넘어,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아픈 내면을 상상할 수 있는 따뜻한 ‘편의점지기’가 되어 타인에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